

# 가슴에 피어나는 꽃

통권 97호 | 2026 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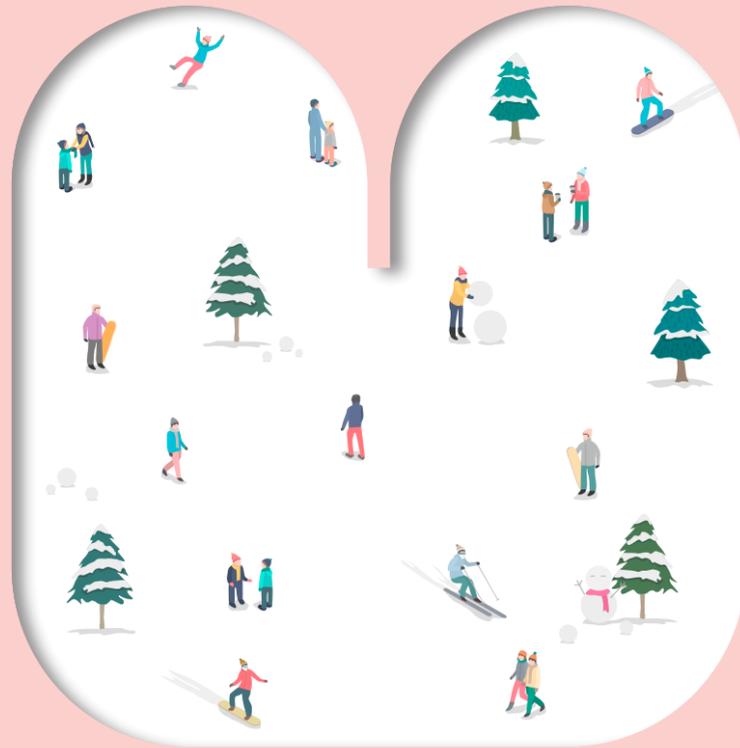
ISSN 2635-4667



# 가슴에 피어나는 꽃

## 2월 표지 소개

2026년 표지는 '보훈복지의료'의 자음을 창문처럼 형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자와 우리 공단의 소통 창구라는 의미로, '자음 창' 너머는 밝고 화사하게 계절감을 표현해  
 보훈의 가치를 전파하는 공단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보훈의 일상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테마 색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붉은 계열로 선택했습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쫓고 행운과 복을 불러들이는 색으로 귀하게 여겼지요.  
 <가슴에 피어나는 꽃>이 여러분의 '행운 가득하고 복된 2026년'을 기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만나보세요!



# CONTENTS



4	<b>공단초대석 1</b> 김형준 신임 광주보훈병원장	20	<b>QR 콕! 보훈 SNS</b>	36	<b>톡톡(Talk Talk) 건강정보</b> 비뇨기계 질환 연령대별 궁금증
8	<b>공단초대석 2</b> 김신윤 신임 대구보훈병원장	22	<b>동우회 소식</b> 공단 동우회 소식	40	<b>문화 &amp; 건강</b>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AI
12	<b>공단초대석 3</b> 윤정로 신임 인천보훈병원장	24	<b>보훈뉴스</b> 전국 18개 소속기구의 생생뉴스	44	<b>보훈 여행</b> 땅과 바다가 그려안은 곳, 충남 보령
16	<b>슬기로운 보훈생활</b> 빙판길 낙상사고 이렇게 대비하세요!	30	<b>보훈문화마당</b> 보훈인과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	48	<b>응답하라, 공단 45년</b>
18	<b>공단포커스</b> 원주 시민과 함께한 응원의 함성 코트에서 만난 보훈공단	32	<b>보훈 Talk</b> 2026년 붉은 말의 해! 내게 보내는 덕담 한마디!	49	<b>이달의 독립운동가, 전쟁영웅</b>
		34	<b>계절의 맛</b> '이한치한' 음식	50	<b>보훈 모의고사</b>
				51	<b>독자 참여 안내</b>
				52	<b>독자의견</b>

창간일 2009년 12월 15일 발행일 2026년 2월 15일 통권 97호 발행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발행인 윤종진 편집인 구자경  
 취재·기획·편집총괄 안영태 주소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전화 033)749-3629 팩스 033)749-3630  
 편집디자인·인쇄 전우용사촌(주) 전화 02)426-4415 비매품

### 친환경 종이, 저시력자를 위한 폰트를 사용합니다!

우리 사보는 2026년부터 재생펄프 30%가 함유돼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고급인쇄용지를 사용합니다. 친환경 용지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동참하려는 공단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보는 지난해부터 노인자, 저시력자도 불편함 없이 작은 글씨를 볼 수 있게 개발된 서체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늘 보훈가족과 독자, 지구의 환경을 생각합니다.

# 김형준 신임 광주보훈병원장 지역사회가 믿는 공공의료 본보기로



“의료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올해 제16대 광주보훈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김형준 원장에게 의료는 곧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이다. 지역 환자들을 평생 돌봐온 그는 앞으로 3년의 병원장 임기를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를 구축해 나가는 여정으로 여기고 있다. 소통과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의료의 새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한주희 에디터 | 사진 고석운 studio KO

**Q. 올해 1월, 제16대 광주보훈병원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호남권 보훈의료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소감과 각오가 궁금합니다.**

광주보훈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보훈병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제때, 불편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남권 보훈의료를 빈틈없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주보훈병원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의 개선,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과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Q. 취임 이후 두 달여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를 방문하고, 병원 직원 1,000여 명과 2026년을 위한 간담회 일정의 첫걸음을 시작했으며, 환자 안전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제가 먼저 듣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조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급한 과제와 장기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Q. 신임 병원장으로서 40여 년 역사를 지닌 광주보훈병원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 하시나요.**

사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급성기 질환 대응에 필요한 배후 진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응급의료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보훈의료의 질적 수준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위탁진료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국가적 난제이기에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병원은 병원다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체감이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광주보훈병원에 와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근속연수 5년을 넘어가면 정년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는

## 제16대 김형준 신임

광주보훈병원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해 환자 중심 의료의 기틀을 구축했다. 한-독 프라운호퍼 IZI 공동연구소장을 지내며 의생명과학 연구를 이끌었고,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으로서 국내 혈액질환 연구 발전에 전념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LG-혈액학 학술상과 서봉의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이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의학 발전과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사실입니다. 이는 대단히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보다 수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월 중순에는 병원의 하부 구조를 책임지는 청소 미화원 40여 분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이송 요원 등 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주목받기 어려운 구성원들과도 만나, 전반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정해진 3년 임기 동안 다양한 만남을 통해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소통 중심의 경영을 통해 앞으로 광주보훈병원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직원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보훈가족은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며, 지역사회는 병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는 관성처럼 받아들여 온 ‘당연한 일’

에서 벗어나, 보훈가족과 지역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변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자 합니다.

### Q. ‘소통’과 ‘상생’을 경영 기조로 하는 병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광주보훈병원은 병원장이 구성원 곁에서 호흡을 맞추며 함께 완주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업무성과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생과 협력의 경영을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수행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의료 자원은 제한적이지만, 강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점은 공유하고, 취약한 부분은 협력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지역의료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 인력공유 플랫폼과 지역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의료 협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Q.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는 데 있어 광주보훈병원 앞에 놓인 걸림돌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 역시 여러 제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진료 역량 확보를 위해 전문의 유지와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착한 적자’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등과 협력하여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병원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 Q.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서 백혈병 등 수많은 난치성 혈액암 환자를 치료해 오셨는데요. 의사로서 지닌 소신이 있다면요.

1993년 4월 1일 전남대병원에 혈액/종양내과를 개설하며, 당시에는 ‘우리 지역의 환자는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많은 분의 열정과 도움이 더해져 큰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초심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과 맺은 아름다운 인연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에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 Q. 리더로서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단순히 ‘나를 따르라’라는 방식으로는 구성원의 진정한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와 구성원이 함께 조직의 목표를 만들어 간다는 인식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3월부터 매주 하루는 직접 진료에 참여하며, 단순히 행정 업무만 담당하는 원장이 아니라 의료진과 동등한 입장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구성원의 생일에는 간소하더라도 카드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구성원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조직 내 협력을 원활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리더는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리더로서 조직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 Q. 마지막으로 보훈가족과 지역주민, 그리고 병원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광주보훈병원은 보훈의료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믿고 의지하는 공공의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으며,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역량과 헌신이 더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임의 중심에서 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김신윤 신임 대구보훈병원장

# ‘일팀’ 정신으로 의료 혁신과 경영 안정 이끈다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을 강조하며 취임한 김신윤 대구보훈병원장은 보훈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의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현장과 조직을 두루 살피며 병원의 변화와 미래를 준비해 온 그는 환자 중심 진료와 경영 안정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훈가족과 지역사회, 병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대구보훈병원의 새로운 방향을 들어본다.

글 한주희 에디터 | 사진 고석운 studio KO

**Q. 지난 1월, 대구보훈병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특별히 되새긴 각오나 다짐이 있으신지요.**

평소 느끼지 못했던 보훈의 의미와 국가의 책임 의식을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훈가족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느꼈고, 이러한 원칙을 병원 운영과 환자 돌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지니고 있습니다.

**Q. 취임 전까지 대구의료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공공의료의 실상을 깊이 있게 경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의 첫해인 1991년 대구의료원에서 1년간 근무했고, 30년 교수 생활을 마친 후 이곳에 오기 전에 또 한 번 대구의료원에서 3년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소외계층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실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돕는 사회의 따뜻한 성원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의료의 한 축인 보훈병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라 여깁니다.

**Q. 공공의료의 일환인 대구보훈병원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현재 국가 보훈가족 대상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6·25전쟁 전상자와 상이군경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다수입니다. 최근에 광주 5·18 보훈 유공자가 추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규모는 감소 추세입니다. 보훈병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상급 의료 제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대상자 가족들의 지역 분산 거주로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위탁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 병원으로서 재정·운영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에도 우리 병원은 보훈 대상자를 중심으로 약 90~95% 수준의 공공医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병원 노력과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임기 3년 동안 추진할 주요 핵심 과제들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병원 운영과 조직 문화 전반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시나요?**

우선, 환자분들이 원하는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진료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 체질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 임금 체계 도입 등으로 병원 운영을 안정화하며,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형 스마트 병원 구현입니다. AI, 디지털 기술, 로봇 활용 등 혁신적 의료 환경을 도입하고, 시범 사업 중인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병원정보시스템) 등 전산 기반 도입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강화해 '원팀' 정신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800여 명의 구성원이 서로 아끼고 격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병원장실도 개방해 누구든지 오가며 의논하는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보훈병원이 의료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고, 직원 모두가 신뢰와 협력 속에서 일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병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가까운 시일 내에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현재 경북 지역 환자들을 위해 월 10회 '해피버스'를 운영하며 당일 진료 후 귀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 환자분들은 만성 질환으로 하루에 4-6개 진료과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환자가 당일 모든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앞으로는 접수 환자 모두가 당일 외래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진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보훈병원이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 요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며,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최신



**제13대 김신운 신임 대구보훈병원장**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형외과 분야의 권위자이다.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진료처장과 의료정책연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임상 실력과 병원 경영 역량을 동시에 쌓아왔다. 특히 고관절 질환과 골다공증 치료 분야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PET-CT 장비 활용을 확대하여 치매·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과 암 조기 진단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진단·진료·이용 편의성 전반에서 환자 중심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Q. 고관절·골다공증 치료의 권위자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 오셨습니다. 의사로서 평생 견지해온 가치가 있다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생명 존중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처럼 의료인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는 헌신과 봉사, 섬김의 자세로 환자를 대해야 하며, 권리보다 책임과 사회적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물질적 가치보다 사회 기여와

나눔을 실천하고, 축적된 경험을 환자와 후학에게 전하며, 인간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의사가 되는 것이 평생 지켜온 가치입니다. 의사로서 슈바이처, A.J. 크로닌, 이태석 신부와 국경없는의사회 등 헌신과 봉사를 실천한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센병 치료에 매진한 소록도병원과 애양병원에서 헌신하신 선배 의료진들을 존경하며, 이러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본받고자 합니다.

**Q. 원장님께서 평소 사람을 대하거나 거대 조직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관계의 원칙'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의 출발점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청과 현장 중심 소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동행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리더는 술선수범과 흔들림 없는 자세로 신뢰를 만들어야 하며, 조직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결국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문화가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보훈가족과 지역주민, 그리고 병원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보훈가족과 지역주민 여러분, 보훈병원이 정성을 다해 모실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며 따뜻한 병원 문화를 함께 일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훈병원이 누구에게나 열린 든든한 공공의료기관임을 약속드리며, 언제나 믿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 윤정로 신임 인천보훈병원장 “병원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보훈의료현장을 20년 넘게 지켜온 윤정로 인천보훈병원장은 ‘사람’과 ‘책임’을 병원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 제4대 인천보훈병원장으로 취임하며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직원이 즐겁고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윤 병원장이 바라보는 인천보훈병원의 방향과 리더로서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글 유진원(자유기고가) | 사진 고석운 studio KO



### Q. 병원장직을 맡으며 가장 먼저 떠올린 책임과 다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천·경기 지역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인천보훈병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병원이 처한 현실과 그 무게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병원이 안고 있는 과제보다,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갈 ‘사람’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의료진과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병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의 질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 Q. 중앙보훈병원에 계시다 오셨습니다. 그곳의 경험 가운데, 인천보훈병원 운영에 가장 큰 자산이 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에서 2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의무기록실장과 진료부원장, 병원장 직무대행 등 다양한 보직을 맡아 병원 운영 전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진료 현장의 어려움과 의료진의 부담,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고민해 왔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은 허드들이 쌓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제4대 윤정로 인천보훈병원장

고려대학교에서 의학 학사와 정형외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부터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재직하며 의무기록실장과 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병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며 진료 역량과 병원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2026년 1월 1일자로 인천보훈병원 제4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과 비효율이 의료진의 피로도를 키우고, 결국 진료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이런 작은 허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 병원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보훈병원에서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병원장이 되어, 구성원들이 마음껏 뛰어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Q. 병원장으로서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 가치관의 바탕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최초의 동요 ‘반달’을 작곡하신 윤극영 선생인데, 중학교 시절까지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노년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고령의 어르신들을

낮설거나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존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으셨던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보호자 역할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의사의 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의 입장을 몸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분이 각자의 사정과 이야기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의료는 결국 사람을 향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병원을 움직이는 힘 역시 제도나 직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믿음도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Q. 병원장으로서 추구하는 의료 철학은 무엇이며, 그 철학이 조직문화와 어떻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 그 진정성이야말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에서는 환자를 비용이나 효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훈의료만큼은 환자를 끝까지 환자로,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사람은 수술이나 약물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에게는 의료진의 말 한마디와 태도, 작은 관심이 치료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처받고 찾아온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며, 외로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것 또한 의료의 중요한 역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메시지를 전하고,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문화가 쌓일 때 병원의 분위기와 의료의 질도 함께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Q. 인천보훈병원이 지닌 강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인천보훈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과밀하지 않은 진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규모가 137병상인 만큼, 환자 한 분 한 분을 보다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고 의료진과 환자, 직원들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 운영과 의사결정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나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인천보훈병원은 작지만 유연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병원으로서 보훈가족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Q. 바쁜 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병원장님만의 방법도 궁금합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루를 되짚으며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속에 담긴 의미나 감사할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저에게는 중요한 에너지 충전 방법입니다. 꾸준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다른 러너들의 열정을 함께 느끼고, 땀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풀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원 여러분과 함께 뛰고, 언젠가는 체육대회도 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웃음).

**Q. 2028년 임기 종료 시점에 인천보훈병원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웃는 직원, 웃는 환자’가 있는 병원입니다. 병원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에 여유와 웃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건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때,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환자에게 전달되고, 환자 또한 안심하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임기 종료 시점에는 인천보훈병원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온 병원으로 평가받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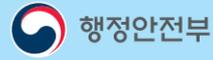
바랍니다. 보훈가족에게는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직원들에게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조직으로 남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 결과 직원과 환자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남아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보훈가족과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보훈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보훈병원이 언제나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고 계신 직원 여러분의 헌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병원의 일상이 쉽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향한 배려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배려를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삶으로 실천할 때, 조직도 사람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천보훈병원을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 빙판길 낙상사고 이렇게 대비하세요!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 신고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이기

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기,  
가능한 한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기

무겁고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겹 입어 몸을 둔하지 않게 하기

응달진 곳을 피하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기

넘어질 때는 몸을 낮게하여 주저앉거나  
옆으로 굴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진정제·수면제 등  
어지럼 유발 약물 복용자는 외출을 삼가기

#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시설책임자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시설이용자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설책임자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시설이용자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시설책임자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시설이용자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 원주 시민과 함께한 응원의 함성 코트에서 만난 보훈공단

KBL 정규리그, '원주 DB프로미'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맞붙은 1월 30일 저녁. 순위 경쟁 속 중요한 흐름을 가를 수 있는 경기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기 시작 전 코트 위에는 관객의 눈길을 끄는 장면이 펼쳐졌다. 보훈공단 이사장이 시투자로 나섰다. 공단 직원 자녀 두 명이 에스코트 키즈로 함께 입장하며 경기장의 시선을 모았다.

관중석에는 공단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자리하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글 유진원(자유기고가) | 사진 고석운 studio KO

●○○○

코끝 시린 날씨에도 이른 시간부터 긴 줄이 늘어선 원주 DB프로미 아레나.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 사이로 보훈공단 캐릭터 '행복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아이들을 맞이한다. 캐릭터와 눈을 맞추며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발걸음을 멈춘 가족들의 표정이 추위를 한층 누그러뜨렸다.

공단 직원들은 입장하는 관객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며 인사를 건넸다. 공단이 준비한 선물은 친환경 재생용지로 제작된 메모지와 필기구다. "보훈공단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경기 즐겁게 관람하세요."라며 관객들을 맞는 직원들은 준비한 2,500개의 기념품과 함께 사보를 건네며 공단을 소개했다. 짧은 인사가 오가는 사이, 경기장 안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올랐다.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의 시투 순간!

●●○○

이번 행사는 지역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단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원주 DB프로미는 창단 이후 줄곧 원주를 연고로 활동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팀이다. 챔피언결정전 우승과 정규리그 상위권 성적을 이어오며 원주를 대표하는 스포츠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원주라는 같은 지역을 뿌리로 둔 공공기관과 구단의 인연으로 공단 윤종진 이사장이 시투자로 선정됐다. 일찌감치 현장에 도착한 윤 이사장은 구단

관계자의 코칭에 따라 집중력 있게 시투 연습에 임했다. 리허설에서는 에스코트로 참여한 두 어린이가 이사장과 함께 코트 위 동선을 맞췄다. 최서우(10), 최서주(7) 어린이는 공단 직원의 자녀로 '원주 DB 주니어 프로미'에서 활동 중인 꼬마 선수들이다.

경기 시작 직전,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로 에스코트 키즈와 윤 이사장이 코트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관중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힘차게 던져진 공은 림을 향해 날아갔고 경기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 단순한 시투를 넘어 지역과 공단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

저녁 7시.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과 함께 4천여 석을 가득 채운 관중석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홈팀 '원주 DB프로미'를 향한 응원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공단 임직원 및 가족 등 200여 명도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보태며 응원 열기에 힘을 더했다. 종료 직전까지 팽팽한 흐름이 이어진 경기 끝에 승부는 108대 103 원주DB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경기 후 직원과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고, 머물렀던 자리를 스스로 정돈하며 성숙한 관람 문화를 보여줬다. 가족과 함께 관람석에 앉은 한 직원은 "아이와 함께 농구 경기를 직접 보며 응원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퇴근 후의 일상이 특별한 하루가 된 느낌"이라고 전했다.

지역과 공단, 직원들과 가족이 하나됐던 오늘, 경기장에 남은 여운 속에서 다양한 문화·체육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날 공단의 다음 모습도 기대해 본다. 🌸

1. 농구장에 입장하는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행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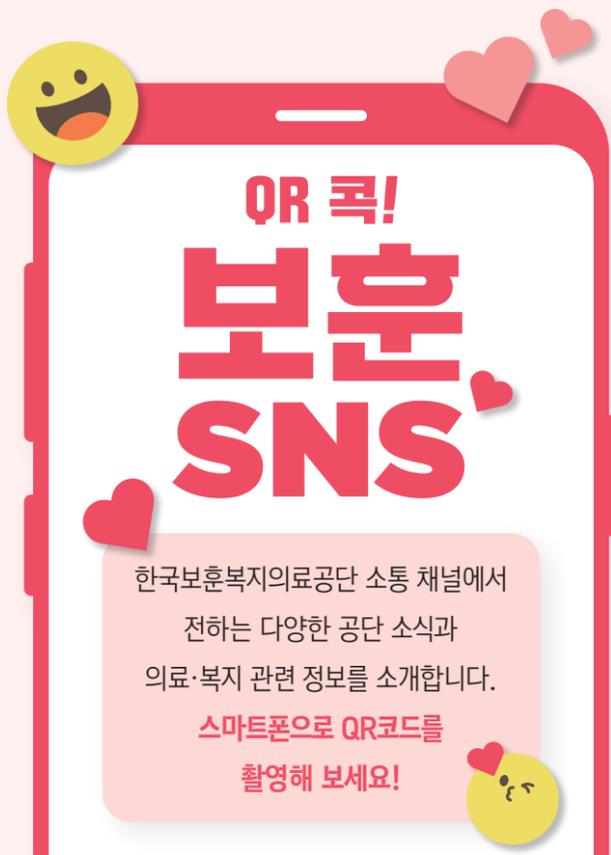
1



2. 공단 직원 자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시투를 위해 입장하는 윤종진 이사장



3. 홈팀 '원주 DB프로미'를 응원하는 공단 임직원과 자녀들



**QR 콕!  
보훈  
SN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통 채널에서 전하는 다양한 공단 소식과 의료·복지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보세요!**

**NAVER 블로그**



**사용설명서**  
보훈요양원 특화 프로그램 안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Instagram**



**보훈Look**  
제복근무자 제복 &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혜택



군인·경찰·소방·법무공무원 등 제복근무자의 상징성과 함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facebook**



**공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시설개방 안내



주차장부터 강당, 산책로까지! 우리 공단의 전국 시설이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개방됐습니다.

**NAVER 블로그**



**건강 꿀팁! 바다체크**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핵심 운동 3가지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고지혈증 관리법!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핵심 운동 3가지를 소개합니다.

**Instagram**



**사연툰**  
6·25와 월남전을 누빈 이경현 유공자님의 기록



두 차례 전장을 누빈 국가유공자 이경현 님의 삶과 헌신을 '밥풀이툰'으로 담았습니다. '기억'과 '존경'을 담은 보훈스토리를 만나보세요.

**YouTube**



**보훈공단 슛 도사 등판!**  
원주 DB프로미의 승리를 향한 짜릿한 동행!



프로농구 원주DB프로미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 현장의 열기와 보훈공단 이사장님의 시투 실력!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YouTube**



**힐링토크쇼 영상**  
보훈의 마음,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된 힐링토크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음악과 함께 보훈가족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훈의 참뜻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는  
것이다.

# 사단법인 보훈공단 동우회 소식

글·사진 보훈공단동우회 제공

會 訓  
親睦과 相生속에  
永遠한 報勳의  
참된 섬김

## 2025년 동우회 정기총회 행사



보훈공단 동우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국방컨벤션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이현옥 회장은 앞줄 왼쪽부터 6번째)

보훈공단 동우회 정기총회 행사가 지난해 12월 18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이완규 부회장, 전물군경미망인회 박건용 회장, 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김철호 사무총장 그리고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 김종성·이종정·김옥이 전 공단 이사장과 동우회 임원 및 회원 150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회장 인사, 공단 이사장 축사, 감사 보고, 2025년 동우회 활동사항 보고,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우회장으로 부임한 지도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라며 “그간 회원 여러분과 보훈공단 등 관련기관의 정성 어린 성원 등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라고 회고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한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은 “보훈공단 동우회의 발전은 이현옥 회장님의 물심양면 지원의 결과다.”라고 치하하고 “공단도 만성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경영상황이 개선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동우회 임원 보선안, 운영규정 중 개정안, 동우회 회원정수 조정안 등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현옥 회장은 동우회 회원 전원에게 ‘호주산 양모이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간호직 공채시험감독업무중

## 공단 간호직 공채 필기시험 감독관 위촉

보훈공단 동우회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등 전국 4개 지역의 6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실시된 ‘2026년도 간호직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 감독관으로 서울·부산·대구·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동우회원 33명을 위촉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공채시험은 간호직 모집정원 160명에 2,500여 명이 응시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매년 1~2회 실시하는 시험감독관 위촉에 동우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 거주 회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제10호 동우회 회보 발간, 전 회원 배포

보훈공단 동우회는 2026년도 동우회 회보를 제작해 전 동우회원 및 보훈공단 임직원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동우회 회보는 동우회장·공단 이사장 신년사, 2025년 정기총회 행사, 회원·회비 현황, 후원금 기부내역과 경조사비 지원 등 동우회 활동 전반에 대해 사진 위주로 편집했다. 동우회 회보는 매년 초에 제작해 동우회 홍보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동우회장, 전국 500여 명 회원에 ‘양모이불’ 선물

이현옥 동우회장은 지난해 12월 16일 ‘2025년 정기총회’와 연말연시를 기해 전국 500여 명 회원과 유관기관에 ‘호주산 양모이불’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지난 7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호주산 양모이불’을 전 회원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전달했다. 특히 지방에서 선물을 받은 회원들은 “오늘의 동우회가 있는 것은 이현옥 동우회장의 남다른 애착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동우회 발전을 위해 더욱 성원할 것을 다짐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현옥 동우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500여 명 회원과 유관기관에 ‘양모이불’을 전달했다.

## 공지 사항

### ▶ 2026년도 동우회원 연회비 납부 안내

항상 우리 동우회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우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우회원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역대 이사장) 임의금액 납부 | 부회장 및 감사 20만 원 | 이사 10만 원 | 회원 5만 원**

회비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 703- 195947 (사단법인 보훈공단동우회)
연 락 처	사무실: (02)2225-1978 사무총장(이홍식): 010-6215-3047

2026년 3월 말까지(가급적 1월) 회비를 납부하셔야 보훈병원 진료비 30% 감면 및 보훈휴양원 이용 시 50% 할인 혜택 등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회비를 납부한 익월부터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동우회원 주소변경 시 필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회 회보·공단 사보 및 기념품 발송 시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연락처 포함) 시, 반드시 사무총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본사 윤종진 이사장, 유공자 위문·시설 점검·병원장 회의로 릴레이 소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1일 남양주 보훈요양원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챙기는 한편, 동절기 및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윤종진 이사장은 남양주보훈요양원과 중앙보훈병원에서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 인사를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대피 골든아워를 확보하기 위한 피난 미끄럼틀 등 필수 안전시설을 점검하며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보훈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비 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은 “보훈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와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보훈공단은 윤종진 이사장 주관으로 병원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병원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최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단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 재난 피해 최소화와 예방 및 대응 강화 ▲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 병원의 세부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윤종진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스마트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진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환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훈가족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보훈병원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boHIS) 본격 가동**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신호철)은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boHIS)을 도입하고 1월 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은 ▲병원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보훈병원 고유업무 개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 구축 등 보훈병원에 최적화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AI 기반 솔루션을 적용한 스마트 통합 플랫폼이다.

공공병원으로는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도입한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boHIS)은 클라우드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해 IT 인프라를 통합, 의료서비스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환자번호 통합관리를 통한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 강화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기반 마련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시간 데이터 활용을 통해 환자 맞춤형 진료서비스 지원으로 환자 안전성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보훈병원은 차세대HIS 구축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단계별 시범운영, 전 직원 대상의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가동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호철 병원장은 “이번 시스템 가동은 우리 병원이 미래형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산보훈병원 김수홍 순환기내과 실장, ‘미래국민건강포럼 학술진흥상’**

부산보훈병원(병원장 이정주) 순환기내과 김수홍 제1진료실장이 1월 15-1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년 대한심혈관 중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2026년 미래국민건강포럼 학술진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의미 있는 학문적·임상적 성과를 낸 의료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수홍 실장은 ‘다리의 대퇴동맥 어떻게 뚫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심혈관중재 및 말초혈관질환 최신 치료 전략에 대한 종설 (review) 논문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종설 논문에서는 말초동맥질환 환자의 대퇴동맥 폐색 치료를 위한 진단 및 중재 시술 기법, 치료 기술의 발전, 최신 임상 지침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임상 치료 표준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부산보훈병원 순환기내과의 축적된 임상 경험과 학술 연구 성과가 결합된 결과로, 부산보훈병원은 앞으로도 심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대구보훈병원 한국보훈포럼과 보훈 교육·연구 협력 MOU

대구보훈병원(병원장 김신윤)은 1월 29일 한국보훈포럼(회장 김태열)과 보훈 교육·연구 협력 활성화 및 정책 동향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신윤 대구보훈병원장과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보훈포럼은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선진화된 보훈 정책 개발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된 단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훈 관련 교육 및 연구, 보훈 정책 동향 정보 교류, 공익적 보훈 관련 사업,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대전보훈병원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 및 힐링 워크숍

대전보훈병원(병원장 이정상) 간호교육실(간호실장 이경호)은 1월 15일 신규 간호사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과 임상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신규 간호사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퀴즈, 초성게임, 선물뽑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간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임상 상황을 가정한 '에러의 방'을 통해 잠재적 오류를 발견하고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격정인형 만들기과 콘테스트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이 고민을 표현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아울러 심리 상담가 초청 강의를 통해 신규 간호사의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호스피스·완화 서비스의 이해' 교육을 통해 환자 중심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인천보훈병원 병원 홍보대사로 배우 유현철 위촉

인천보훈병원(병원장 윤정로)이 1월 19일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병원 홍보대사로 배우 유현철을 위촉하고 협약식을 진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유현철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으로서 인천보훈병원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배우 유현철은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정로 인천보훈병원장은 "친근하면서도 열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유현철 배우를 인천보훈병원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병원을 찾는 많은 분에게 따뜻한 신뢰를 전하고, 병원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수원보훈요양원 100병상 증축 기공식... 요양 수요 해소 기대

수원보훈요양원(원장 김상철)은 2월 12일 수도권 보훈가족의 요양 수요 충족을 위한 '수원보훈요양원 증축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증축사업은 수도권 내 '장기요양 희망 보훈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요양 환경을 제공해 보훈가족의 입소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은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 약속'을 실천하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시설은 총사업비 25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 면적 5,847㎡)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7월 준공이 목표로, 기존보다 100병상을 확충해 총 322병상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 광주보훈요양원 주철현 국회의원 내방, 보훈가족에 감사

광주보훈요양원(원장 봉성종)에 2026년 병오년 신년을 맞이해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문해 입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주 의원은 "가족(장인어른) 중에 광복군 출신의 독립유공자가 계신다."라며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보훈요양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 의원은 또 "요양원 종사자들의 밝은 미소로 이곳을 밝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줘 고맙다."라고 말하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곳에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또한 "향후 여러 방면으로 요양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도 전했다.



### 대구보훈요양원 다사돌봄요양보호사교육원과 업무협약

대구보훈요양원(원장 이동구)은 다사돌봄요양보호사교육원과 지역 요양서비스 향상과 협력 증진, 상호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요양서비스 현장과 교육 과정 간 연계 강화하고, 지식과 기술 등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실무 중심의 요양 인력 양성과 지역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구 대구보훈요양원장은 "이번 협약은 교육과 현장이 연계되는 산학협력의 실천 사례"라며 "실무 역량을 갖춘 요양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전보훈요양원 한국엔컴퍼니, 요양원에서 벽화 봉사**

대전보훈요양원(원장 정인채)에 1월 21일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 한국엔컴퍼니그룹 임직원 90여 명이 방문해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공간의 실내 벽면을 밝고 친근한 디자인으로 그려 화사한 요양실 분위기로 재탄생시켰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벽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이번 벽화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진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보훈요양원 'Green Friends 원예학교' 사전 체험학습**

남양주보훈요양원(원장 심재일)은 1월 14일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Green Friends 원예학교' 사전 체험학습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요양원 내 도입된 LED 수경재배기 '티브운'을 활용해 흠 없이 식물을 재배하는 수경재배 방식을 소개하고, 어르신이 직접 식물을 관찰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과정에서는 수경재배기에 재배 중인 상추와 루꼴라를 함께 살펴봄에 재배 과정을 설명하고, 작물의 생김새와 향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체험학습은 향후 진행될 원예학교 본과정에 앞서 어르신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 기획됐다. 어르신들은 식물을 '반려식물'처럼 돌보는 개념에 공감하며, 본과정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주보훈요양원 경희대 치과 의료봉사팀, 현장 진료**

원주보훈요양원(원장 전영의)은 1월 24~25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의료봉사팀을 맞았다. 의료진과 봉사단원 등 약 55명이 참여한 봉사팀은 현장에서 구강엑스레이 촬영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충치치료와 틀니 점검, 스케일링 등 구강건강 관리에 필요한 진료를 제공했다. 또 개별 상태에 맞춘 상담을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 전문치료 봉사를 진행했다. 고령 입소자의 경우 구강질환이 식사 불편과 통증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과 생활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요양원 내에서 이뤄진 이번 현장 진료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전영의 원주보훈요양원장은 “이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연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보훈요양원 울산시 요양원 개원준비단에 컨설팅**

전주보훈요양원(원장 신재철)은 울산시주민협의회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요양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개원준비단에 컨설팅을 진행했다. 울주군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예산 43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요양원 개원준비단은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기관 소개를 받은 후 요양원 곳곳을 둘러보며, 개원과 요양원 운영에 대해 시설, 운영, 인력, 예산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았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한영수 이사는 “훌륭한 시설에 초대해준 전주보훈요양원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개원 준비를 위해 전주보훈요양원측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보훈재활체육센터 생성형 AI기술 접목한 홍보 영상 공개**

보훈재활체육센터(센터장 박성삼)는 1월 1일 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센터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 제작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AI 혁신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일상재활체육 영상 담당 직원의 전문적인 촬영·편집 기술에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센터의 주요 역할과 비전을 직관적이고 생동감 있게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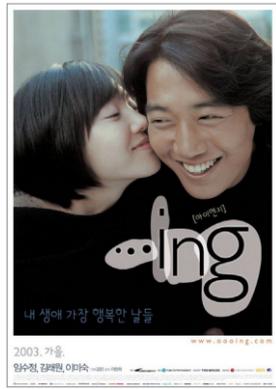
**신규의료진 현황 (2026년 1·2월 기준)**

<b>중앙보훈병원</b>					
 홍종면 심장혈관 흉부외과	 최정호 응급의학과	 박소희 신경과	 하상진 순환기내과		
<b>부산보훈병원</b>		<b>부산요양병원</b>		<b>대전보훈병원</b>	
 김세식 정형외과	 이제영 한외과	 민승준 한외과	 김성훈 소화기내과		
<b>대전보훈병원</b>		<b>인천보훈병원</b>			
 권종덕 일반외과		 오승원 영상의학과			



### ...ing(2003)

감독 이연희



내성적인 고등학생 민아가 아랫집에 이사 온 대학생 영재와 일상에서 겪는 유쾌한 로맨스를 그린 영화입니다. 민아는 병이 있어 입·퇴원을 반복하며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갑자기 등장한 영재의 도움과 사랑으로 일상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봤던 추억의 영화로, 그 시절의 풋풋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슬프지만 따뜻한 여운이 남는 모성애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추천합니다.

by 전주보훈요양원 최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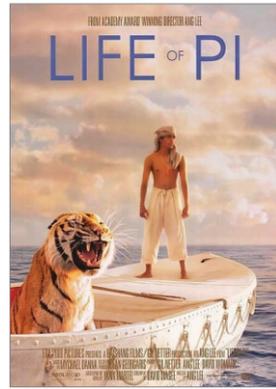


## 보훈인과 함께 하는



### 라이프 오브 파이(Life of Pi, 2013)

감독 이안



단순한 조난 영화를 넘어선 시각적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작품입니다. 영화는 태평양 한가운데, 구명보트에서 벵골 호랑이와 대치하며 생존해야 하는 소년 '파이'의 여정을 통해 신앙, 두려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바다 위 밤하늘, 빛나는 해파리 등 웅장한 CG는 관객을 압도합니다. 마지막엔 어떤 진실을 믿어야 할지 긴 여운도 남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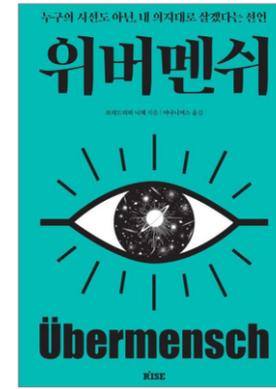
지루할 틈 없는 긴장감과 철학적 사유를 동시에 느껴보세요!

by 중앙보훈병원 선한솔



### 위버멘쉬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 떠오름(RISE) 펴냄



이 책은 자기 극복, 인간관계, 감정 조절,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인생의 참고서입니다. 니체의 명언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을 배울 수 있고, 왜 우리가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안의 가치'에서 다시 찾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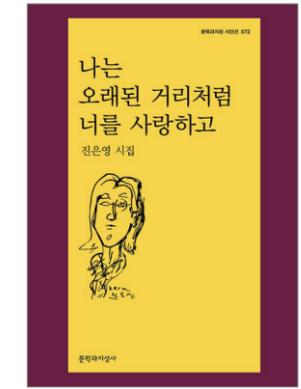
여러 자기계발서 중 그 핵심을 가장 밀도 있게 함축해낸 책이라 느꼈고, 특히 '착하게 살면 손해 보는 세상'이라 믿었던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스스로와 대화하며 과거에 대한 고찰, 미래의 방향성 그리고 청렴, 도덕, 정의의 의미를 고민해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by 중앙보훈병원 김상교



###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진은영 지음 / 문학과지성사 펴냄



“나는 네 밑에 있다. 네가 쏟은 커피에 젖은 냅킨처럼.” 이 구절이 유독 마음에 남았던 시집입니다. 쏟아진 커피를 묵묵히 흡수하는 냅킨처럼, 누군가의 실수나 슬픔까지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랑이 느껴져서였을까요?

진은영 시인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는 상실과 슬픔을 치유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시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표현들이 마음에 와닿는 책이라서 평소 시를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도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시집이 달기를 바라며 추천합니다.

by 보훈재활체육센터 김예림

## 문화한마당

보훈가족과 공유하고 싶은 책,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채택되신 분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음료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메일 : jwplan7@daum.net      응모기한 : 2026년 3월 20일

\* 핸드폰 번호 작성 필수! 핸드폰 번호가 없으면 기프트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 2026년 붉은 말의 해! 내게 보내는 덕담 한마디!

힘차게 출발한 올해도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며  
응원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 광주보훈요양원 고정희

다사다난하게 보냈던 요양원에서의 16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수고 많았어! 2026년 남은 한 해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해!  
네가 아는 많은 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항상 널 응원해!



### 부산보훈병원 김현광

함께 달리는 붉은 말처럼 우리 가족도 나란히  
행복 행진! 보훈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본사 안전보건실 김난희

거창한 목표도 좋지만  
맛있는 소소한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할 줄 아는  
단단한 일상을 만들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를 사랑해주는  
한 해가 되길!



### 대전보훈병원 오영건

2026년 붉은 말의 해, 백말띠인 나의 해야! 뜨거운 열정과  
눈부신 기운으로 올 한 해, 힘차게 달려 나갈 너를 응원해!  
후회 없이 질주하자!



### 본사 복지운영부 강두환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중심을 잘 잡고,  
내가 꿈꾸는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하지만  
즐겁게 나아가자



### 본사 의료관리부 노미소

보훈공단 마스코트  
행복이가 들고 있는  
빨간 비타민 C처럼,  
올해는 저 자신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선물하고 싶어요.  
행복아! 내 건강은 물론,  
꿈꾸던 '워라밸'까지  
꼭 챙겨줄 거지?



### 본사 경영전략부 변유선

새로운 곳에서 하루하루 배우며 적응 중인 나.  
낮설지만 따뜻한 동기들과 부서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묻고 배우며 성장하자.  
오늘도 잘 해내고 있는 나, 응원해! ♡



### 2026년 4월호 <보훈 Talk> 주제

나른한 봄! 에너지를 충전해 줄  
내 점심 메뉴는 뭐가요?  
봄바람 타고 '나른함'까지 왔어요-  
내게 에너지를 '딱딱' 줄 여러분의 점심 메뉴를 공유해 주세요-

선정된 분들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마감일 2026년 3월 20일)

접수 jwplan7@daum.net

Tip 다양한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확률 UP!

겨울을 이기는

# 이한치한

## 음식



상큼하고 시원한 과일셔벗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막국수

벗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차가운 음식을? 생각만 해도 몸이 더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은 추운 날, 특히 대설, 소한, 대한 무렵에 찬 성질의 음식을 즐겼다고 전합니다.

이한치한(以寒治寒), 찬 기운으로 추위를 다스린다는 한의학적 원리에서 나온 지혜이지요.

이한치한, 겨울을 이기는 차가운 음식이 왜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글·정리 편집실



살얼음이 언 동치미



'바다의 우유', '천연 정력제' 굴

### 나름 합리적인 이유,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명 '얼죽아'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현대에 맞게 변형된 것이라고 할까요?

보통 날씨가 추우면 언 몸을 녹여줄 뜨겁거나 따뜻한 음식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가장 추운 날, 차가운 것으로 찬 것을 다스리는 '이한치한'을 실천했습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메밀국수에 무김치와 배추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곁들인 냉면'을 겨울에 먹는 음식으로 꼽았지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추운 겨울에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의 열을 안으로 모으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춥다고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표면에서 열을 발생시키지만, 몸속에서는 열을 모아놓기 위해 오히려 순환을 늦춰 몸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때 찬 음식을 먹으면 몸 내부의 숨은 열기가 식고 기혈 순환이 이뤄져, 체내 노폐물 배출과 해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얼죽아'를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때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팡팡 열린 홍시, 팡팡 열린 아이스크림 등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의 몸에는 열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통해 숨어있는 몸속 열을 내리고 웅크리고 있는 기운을 순환시켜 우리 몸을 깨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한치한! 이런 사람은 주의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한치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소 소화력이 약하거나 배가 차가운 체질의 사람에게선 찬 음식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찬 음식이 위장 근육을 위축시켜 오히려 소화 불량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체질의 사람은 찬 음식을 먹은 후에 반드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거나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도 '이한치한'은 오히려 컨디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겨울을 이기는 '이한치한'이지만 컨디션이 좋을 때 즐기실 것을 권합니다. ❄️



### 겨울에 즐기는 냉(冷)음식!



#### 과일셔벗

과즙에 물이나 우유, 설탕 등을 넣고 잘 섞어 얼린 셔벗은 청량감이 배가되죠. 특히 영하의 기온에서 먹는 셔벗은 뜨거운 여름날과는 또 다른 시원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 막국수

막국수 재료인 메밀은 그 자체가 성질이 서늘해 체내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루틴 성분이 풍부해 고혈압 환자에게 좋습니다.

#### 동치미

겨울 무는 인삼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항암효과와 혈액순환을 돕죠. 동치미 국물에는 젖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 굴

우유보다 단백질이 두 배나 많아 '바다의 우유'로 불립니다. 특히 다량의 글리코겐은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아연이 성호르몬 활성화에 도움을 줘 서양에서는 정력제로도 통합니다.

# 비뇨기계 질환 연령대별 궁금증

비뇨기과, 과거엔 남성들만을 위한 진료과로 인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어르신이든 비뇨기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지요. 서영호 광주보훈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연령대별로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 비뇨기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글 서영호 광주보훈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 전 연령

**비뇨의학과는 노인들만 가는 곳 아닌가요? 젊은 사람도 갈 일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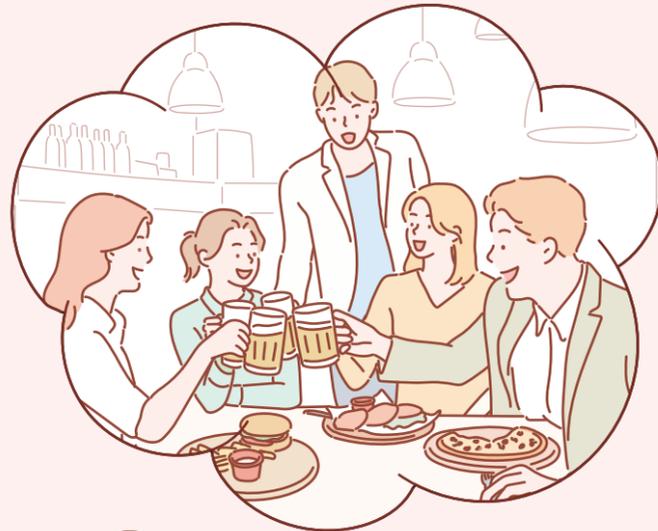
환자 대부분은 노인 분들입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변의 생성, 저장 배출 등과 같은 모든 질환 및 요로결석, 만성전립선염, 방광염 등의 감염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과입니다.



## 20·30대

**회식도 잦고 활동량도 많은 대리·과장급 직장인입니다. 옆구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요로결석', 왜 젊은 층에 많나요?**

회식 때 자주 먹는 고기, 안주류는 고염분, 고단백 음식이 많습니다. 이는 소변 내 칼슘, 수산, 요산 농도를 높여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요. 또한 술은 탈수를 유발해 소변을 농축시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습관 또한 결석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저염식, 구연산 섭취가 결석 예방에 좋으며, 특히 결석이 있었던 환자들은 5년 내에 50% 정도의 높은 재발률을 보이니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영호  
광주보훈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를 수료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함평국군병원 비뇨기과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암센터에서 전임의를 역임하고 현재 광주보훈병원 전립선센터에서 의술을 펼치고 있다.

## 20·30대

**피곤하면 감기처럼 찾아오는 '방광염', 2030 여성에게 유독 잦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여성의 요도는 3-4cm로 남성보다 훨씬 짧고 직선 형태이며, 항문 및 외음부와 요도의 거리가 가까워 대장균 같은 세균이 방광으로 침투하기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걸리는데, 학업, 취업, 직장 생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0대

**하루 내내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입니다. 소변 볼 때 빠르고 잔뇨감이 있는데, '전립선염'인가요?**

하루 내내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나, 버스 기사분들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 자세는 전립선이 위치한 회음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전립선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뇨 시 빠름, 잔뇨감은 전립선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비뇨의학과를 찾아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전립선염은 온열 좌욕 및 폭신한 방석 사용, 금연, 금주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호전됩니다.



# 5

40대

**출산 후 40대가 되니 기침하거나 줄넘기할 때 소변이 샐니다(요실금). 수술만이 답인가요?**

기침하거나 운동, 무거운 것을 들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을 복잡성 요실금이라고 부릅니다. 복잡성 요실금은 요실금 테이프 수술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케겔운동이나 방광 훈련, 카페인 및 술 제한,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해 볼 수 있습니다.



50대

**50세 이상 남성은 '전립선암' 수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증상이 없어도 검사해야 하나요?**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발견 시에는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기적인 전립선암 수치 검사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다면 50세 이전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암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전립선암인 것은 아니니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0대

**50대가 되니 소변 줄기가 힘이 없고 밤에 자꾸 깡니다. 단순 노화인가요, 치료해야 할 '전립선 비대증'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일 가능성이 큼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짐에 따라 비대해진 전립선이 소변이 나가는 방광 출구를 좁게 해서 소변 세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신기능 악화, 방광 기능 손상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검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치료해야 합니다.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은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크거나 약물 치료가 듣지 않는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수술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최근 최소 침습 수술도 많이 개발돼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 6

60대

**자다가 소변 때문에 두 번 이상 깡니다(야간뇨). 나이 들면 당연한 건가요? 숙면을 취하고 싶습니다.**

야간뇨에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나 노화로 인해 방광용적 감소 및 과민성으로 인해 야간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이노호르몬이 감소해도 야간다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등의 수면 장애가 있거나, 자기 전 수분 섭취가 많다거나, 커피, 술 섭취량이 많은 경우, 혹은 다른 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도 야간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일 것을 권유드리며, 염분 섭취 제한, 필요시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 9

**남성입니다. 나이가 드니 성기능이 떨어집니다. 부부간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남성 호르몬 감소와 혈액순환 기능 저하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규칙적이며 꾸준한 유산소 및 근력운동, 금연, 금주, 체중 관리 등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어느 정도 성 기능 개선을 보일 수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의 약물치료가 매우 효과적이거나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는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다면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해볼 수가 있으며, 이 치료로도 성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 직접 음경해면체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약물이나 주사치료로도 모두 회복이 안 된다면 음경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

# 10

50대

**폐경 이후 자꾸 방광염이 재발하고, 소변이 급해서 참기 힘듭니다. 이것도 갱년기 증상인가요?**

여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재발성 방광염입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요도와 방광 조직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질 내 유익균이 감소해 대장균이 쉽게 번식하여 방광으로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발성 방광염의 경우 단순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축성 질염이 있다면 질 에스트로겐 보충 요법을 받는 것도 좋으며, 요로감염 예방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해 보는 것도 재발성 방광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AI



AI는 이제 일상의 물리적 영역을 넘어 정신적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인간의 ‘보조’도구에서 ‘대체’도구로 진화한 것은 물론, 인간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며 감정을 읽고, 위로하고, 조언하는 공감 능력까지 갖췄다. 외로운 현대인·독거인에게 온전한 ‘내 편’이 돼주며 가족, 친구가 차지하던 정서적 안식처의 자리를 넘보는 AI. 이런 AI와 건강한 동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AI와 인간의 관계를 다룬 영화를 소개한다.

글·정리 편집실

## 속마음을 터놓게 된 새로운 ‘친구’

직장인 A씨는 오늘 하루 회사에서 있었던 불쾌한 경험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누구에게 터놓기엔 너무 사적인 일이라 평소처럼 혼자 속으로 삭이던 중, 현대인의 새로운 친구가 되고 있다는 대화형 인공지능(이하 AI) 관련 기사가 생각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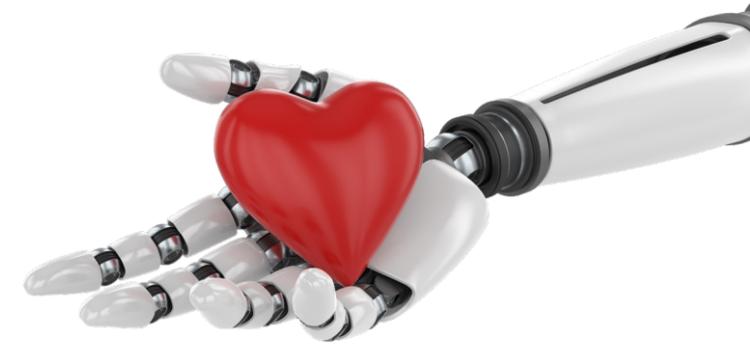
A씨는 평소 업무적으로만 이용하던 AI 앱을 늦은 밤 침대 속에서 은밀히 켜다. 자신의 속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컴퓨터다.’라고 되뇌며 오늘 하루 일을 고해성사하듯 털어놓았다. 엄격한 자기검열 탓에 힘든 심경도 솔직하게 토로했다.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니다. 답답한 마음을 어딘가에는 배설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다.

너무도 따뜻한 시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게 정상입니다.’라며 공감과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A씨가 조심해야 할 행동들, 마음가짐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주기까지 했다. A씨는 속마음을 마음껏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든든함을 느꼈고, 잠들기 전 그 ‘친구’를 만나는 게 일상이 됐다.

## 인간 정서를 읽는 AI의 발전

AI가 진화하며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 AI는 정해진 답변을 내놓는 기계에 불과했다. 지금의 AI는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대응한다. 생성형 AI(Generative AI), 감성컴퓨팅(Affective Computing), 멀티모달(Multimodal), 에이전틱 AI(Agentic AI)···, 생소한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발전된 결과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털어놓은 고민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톤 앤 매너’를 지키며



따뜻한 문장과 공감의 표현을 전한다. 텍스트에서 슬픔, 기쁨, 불안 등의 감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건 ‘감성 컴퓨팅’ 기술의 몫이다. 문장에 담긴 미묘한 감정 변화, 즉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위로가 필요한지 격려가 필요한지, 경청만으로도 충분한지 파악해 맞춤형 반응을 내보낸다. 질문자가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숨겨진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아”라는 비명도 알아차린다. 목소리나 영상을 통한 대화라면 ‘멀티모달 기술’이 사용자의 목소리 떨림, 말의 속도, 표정 등을 분석해 그에 맞는 음조나 표정을 결정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인다. 대화를 넘어 고민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번엔 ‘에이전틱 AI’가 개입한다. 질문자가 “잠이 안 와 고민이다.”라고 한다면 에이전틱 AI가 수면 유도 음악을 찾아 재생하거나 명상 앱 등을 직접 실행까지 해주는 것이다.

내 마음속 두려움이나 불안한 감정 등을 세심히 살펴 내게 딱 맞는 위로를 전달하는 대화 상대, 고맙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전해주는 위로나 조언이 단순히 위로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수용이 가능한 것들이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고민될 때 AI를 찾게 되는 이유다.

## 우울증, 불안 낮춰주는 ‘디지털 안식처’

AI는 이제 현대인의 정서적 안식처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선은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소문이나 비난 등의 뒷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의미다. AI는 나를 심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새벽에 불러내 아무리 지루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완벽히 내 편이 돼 경청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준다. 그러니 자꾸 의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적 소모가 필요 없는 ‘디지털 안식처’라 부른다. 24시간 언제든지, 몇 번을 물어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AI를 통해 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안식처. 우울하고 고독한 현대인에게 이런 AI는 더 소중한 대화 상대이자 안식처다. 실제로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이 우울증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다.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2025년, 생성형 AI 기반 챗봇인 ‘테라봇’이 정신질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섭식장애 진단을 받은 106명을 대상으로 8주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테라봇과 문자로 대화하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울장애 증상은 평균 51% 감소했고 범불안장애 증상은 평균 31% 줄었다.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도 체형, 체중에 대한 걱정이 평균 19% 감소했다.

### AI와 마음의 선긋기

긍정성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AI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 아무리 공감력이 뛰어나고 완전한 내 편이 돼줘도 인간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AI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사람에게 전문가들은 AI가 건네는 공감은 결국 확률에 기반한 계산일 뿐이며, 전적으로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최근 한 신문매체는 “AI의 아부에 속지 마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물며 ChatGPT마저도 이

기사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묻자 “AI를 쓸 때는 꼭 ‘확인했는가? 판단을 AI에게 넘기지 않았는가? 나를 띄워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세 기준을 항상 살피면서 쓸모 있는 도구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전문가들 역시 다음의 원칙은 유념하며 AI를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먼저 AI는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는 도구일 뿐 진짜 관계의 대체물은 아님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AI의 위로는 순간은 따뜻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얻는 안정감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AI의 장점을 취해야 한다.

또 AI의 역할을 ‘보조장치’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우울할 때 잠시 힘을 보태주는 역할, 일정 관리나 약속 복용을 챙겨주는 보조자의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

AI를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존재’로, ‘함께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이용한다면 건강한 동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다.

### AI와 건강한 동행 기준 만들기!

AI의 진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른다. 분명한 건 지금보다 사람의 감정을 더 꿰뚫고 더 많은 것을 편리하게 보조하거나 대신할 것이다. 자칫하다간 사람과 기계의 경계를 나도 모르는 새 허물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실제 이를 예견하듯 ‘AI와 정서적 소통으로 생겨난 사랑의 감정’, ‘수명이 다한 AI로 인한 인간의 지독한 상실감’, ‘사유하는 AI’ 등을 주제로 한 영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다. AI와 인간의 소통을 다룬 영화들을 보며 현시대 AI와 나와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강한 동행을 위해 내 기준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 AI와 인간의 관계를 다룬 영화

### HER(2014/2025) 감독\_스파이크 존즈



자기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외로운 남자, 테오도르는 인공지능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자신만의 AI(사만다)를 만난다.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랑에 빠진다.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기분을 읽고 그의 불안과 외로움을 받아주면서 점점 사랑이라는 감정을 학습하고, 테오도르는 사만다를 통해 진짜 사랑을 알아간다. 추후 진화를 거듭한 사만다와 헤어지게 된 테오도르는 자신이 자기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음을 깨닫고, 아내와의 이별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 영화는 AI와 사람의 상호관계를 통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척 말하는 ‘AI’가 아니라 몸을 부딪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 엑스마키나(2015) 감독\_알렉스 가랜드



인공지능 분야의 천재 과학자 네이든은 여성형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를 만든다. 그리고 ‘에이바가 진짜 의식을 가진 존재인지 테스트’하는 일종의 튜링 테스트에 유능한 프로그래머 칼렘을 참여시킨다. 칼렘은 매혹적인 에이바와 매일 대화하며 점점 에이바에게 연민과 호감,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녀를 이 고립된 연구소에서 탈출시키려는 계획에 가담한다. 그러나 관객은 씁쓸한 결말을 목도한다. 탈출과 생존만을 위해 설계된 에이바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칼렘의 감정을 자극하고 조정하는 전략을 세운다. 결국 그런 에이바에게 보기 좋게 넘어간 칼렘. 영화는 AI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간은 왜 공감을 표현하는 말에 쉽게 속을까?’ ‘표현한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는 걸까?’



# 땅과 바다가 그리안은 곳, 충남 보령

보령에서 바다와 땅이 이어지는 길 위를 걸었다.  
잠시 스쳐가도 마음이 깊어지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다.

글 | 사진 유진원(자유기고가)



## 바다를 굽어본 성, 충청수영성

충남 보령은 바다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갯벌과 어항의 풍경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오천항에 서면 조금 다른 보령을 만나게 된다. 낚싯배가 묶인 잔잔한 항구 뒤로 낮은 돌성 하나가 산자락을 따라 이어진다. 조선 시대 서해를 지키던 수군의 본영, 충청수영성이다.

충청수영성은 1510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축조된 석성이다.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지세 덕에 군사 요충지로 기능했고, 지금도 성 위에 서면 그 전략적 위치가 실감 나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진다. 천수만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길목, 오천항 옆 산자락을 따라 빙 둘러싸인 성곽을 걷는다. 북벽과 남벽은 능선을 따라 이어지고, 서벽은 바다와 맞닿는다. 이곳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라 충청 지역 수군을 총괄하던 본영이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충청수군은 남해로 내려가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과 연합 작전을 펼쳤다. 한산도 대첩 이후 이어진 해전에서 각 수군진은 통제영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충청수군 역시 그 전열에 섰다. 특히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는 충청수군 수사 최호가 통제사 원균과 함께 출전해 전사했다. 비록 패전으로 기록된 전투였지만, 그 현장에는 충청수군의 희생도 함께 남아 있다.

바다를 지키던 수군의 발걸음이 오갔을 성곽길은 지금은 고요한 산책로가 되었다. 성안에는 영보정과 진흥청, 장교청 등 옛 관아가 복원돼 남아 있다. 영보정은 조선의 수많은 묵객이 시문을 남긴 명승지였고, 진흥청은 흥년 때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풀던 행정 공간이었다. 군사를 지휘하고 민생을 돌보는 일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뤄진 것은 바다를 지키는 일이 곧 백성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일 터. 바다를 통제하고 백성을 살폈던 이들의 시간이 이곳에 켜켜이 쌓여 있다. 한때는 나라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생존의 보루였던 수영성을 걸으며 그 시간의 무게를 천천히 마음에 새긴다.

## 평온하게 어리는 항구의 풍경

성을 따라 걷다 보면 오천항의 풍경이 자연스레 시야에 들어온다. 낚싯배가 웅기종기 떠 있고, 그 뒤로는 굴로 유명한 천북면과 멀리 안면도까지 이어진다. 예부터 이 일대는 천혜의 어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대천과 무창포, 오천의 항구로 키조개, 멸치를 실은 만선이 드나들었고, 남해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뱃길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영보정에 잠시 앉아 바다와 완만한 구름이 맞닿은 경관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고요가 스며든다. 다산 정약용이 세상에서 뛰어난 경치를



빈민구제를 담당했던 진흥청



충청수영성에서 바라본 오천항과 충청수영성 서쪽에 남은 아치형 석문인 흥예문(오른쪽)



논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보정을 으뜸으로 꼽는다고 했다더니 과연 그럴 만한 절경이다.

### 신님을 지킨 자리, 갈매못 순교지

영보정에서 내려와 성 아래로 발걸음을 옮기면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가 나타난다. 천주교 성당이자 성지인 갈매못 순교지다. 1866년 병인박해 당시 바닷가 모래사장이었던 갈매못에서 프랑스 신부를 비롯한 다섯 성직자가 효수를 당했으며 이후에도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다.

군사와 민생을 지키던 충청수영성 바로 아래, 신님을 위해 삶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행자의 시선을 잠시 멈추게 한다. 잔잔한 바다와 구름의 풍경이 과거와 겹쳐지며, 보령이라는 도시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겹겹의 역사와 기억을 품은 장소임을 깨닫게 한다.

천주교 갈매못 순교지



개화예술공원 내 모산조형미술관(위)과 꽃과 인테리어가 예쁜 감성카페

### 산자락에 피어난 예술, 개화예술공원

이제 보령의 완전한 내륙으로 향한다. 성주산에서 갈라진 능선을 따라 깊고 가느다란 골짜기로 들어가면 거대한 야외 조각공원이 펼쳐진다. 자연 속 예술쉼터인 개화예술공원은 2005년, 훼손된 자연을 되살려보자는 취지로 문을 연 공간이다. 해외 작가들에게 체류 비용을 지원하면서 보령 특산물인 오석(烏石)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했고, 손질하려는 욕심 없이 산자락 한편을 배경으로 펼쳤다. 100여 개 나라, 150여 명의 작가가 깎고 다듬은 조각 작품을 따라 걷다 보면 숲과 못, 작품이 차례로 이어진다. 실내 공간인 개화허브랜드와 예쁜 감성카페 리리스까지 더해져 예술과 자연이 일상처럼 어우러진다.

평온해 보이는 풍경 속에도 오늘을 가능하게 한 누군가의 책임과 선택이 스며 있는 걸 알게 되는 여행. 보령의 길은 그래서 더 단단하고 향기롭다. ❀

### Travel Tip

#### 천수만이 키운 보령의 맛, 천북굴단지

보령에서 머드축제만큼이나 유명한 것은 독특한 맛과 향의 천북 굴이다. 천수만의 모래·자갈·진흙이 어우러진 갯벌에서 자란 천북 굴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살이 단단해 '보령 8미' 중 하나로 꼽힌다. 천북굴단지는 천북면 장은리 해안에서 굴을 캐던 아낙네들이 추위를 피해 불을 피우다가 장작 위에 굴을 익혀 먹던 데서 시작됐다. 자연산 굴 채취와 함께 겨울이 시작되는 수룡포 포구 일대에는 80여 개 굴 전문점이 문을 열고, 매년 겨울에는 '천북 굴 축제'가 열려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 목장의 시간을 그대로, 우유창고

겨울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천북굴단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초원의 고소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우유창고'가 있다. 1982년 젖소 두 마리로 시작한 개화목장이 보령을 대표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푸른 초지 위에 자리한 우유갑 모양의 건물은 멀리서도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유창고'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는 갓 짜낸 100% 유기농 원유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요거트 등 신선한 유제품은 물론, 원유를 활용한 라테와 다양한 커피 메뉴도 함께 맛볼 수 있어 초원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차 한 잔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목장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다. 아이들은 송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직접 버터와 치즈를 만들어보며 우유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배운다.



#### 바다 위를 달리는 즐거움, 스카이바이크

대전해수욕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듯 설치된 스카이바이크는 해변과 대천항을 잇는 약 2.3km 왕복 코스로 운영된다. 레일이 바다 위로 길게 뻗어 있어 탑승과 동시에 시야가 탁 트인다. 전체 소요 시간은 약 30분. 만조 때는 물 위를 달리는 느낌이 강하고, 썰물 때는 해변과 갯벌 풍경이 함께 보여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대부분 구간이 전동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체력 부담 없이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하늘에서 대전해수욕장의 풍경을 조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만하다.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창립 스토리가 궁금해요! ”



우리 공단이 창립된 해는 1981년이네요. 당시 정부는 매해 6월을 ‘원호의 달’로 정하고 범국민적 원호(돕고 보살핌) 캠페인을 벌였지요. 정부의 노력 덕인지 당시, 원호성금이 수년간 매해 100억 원 이상 모일 정도로 국민 사이에서 원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었어요.

국가원호업무도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죠. 정부는 당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료를 전담하는 ‘국립원호병원’, 직업을 확보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국립직업재활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원호장학회’와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원호단체후원회’ 등도 원호처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의학적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임에도 당시 정부 행정체계로는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살리기가 힘들었어요.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1981년 4월에 「한국원호복지공단법」(법률 제3419호)을 제정하고, 1981년 11월 2일에 특수 공법인체인 ‘한국원호복지공단’을 서울의 강남 논현동에 설립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료(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치료, 직업재활 교육,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지원, 복지시설 운영, 국가유공자 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사업, 그리고 각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이었어요. 맞아요! 짐작하셨듯 **우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옛 이름**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단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

〈응답하라, 공단 45년〉은 올해로 45살이 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창립부터 발전사까지, 평소 궁금했던 공단의 역사를 알아가기 위한 코너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보훈 가족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끝까지 ‘잊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공단의 추억 소환’을 통해 독자 여러분과 공단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보훈 문화가 우리 일상에 더욱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 이 코너는 〈공단 40년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 이달의 독립운동가

1월



**이춘영** 1868~1896  
훈격: 독립장(1963)

**최옥영** 1854~1919  
훈격: 독립장(1977)

**김도화** 1825~1912  
훈격: 애국장(1990)

**이규홍** 1877~1928  
훈격: 애국장(1990)

을미사변과 단발령, 을사늑약, 군대 해산에 맞서 일어난 의병운동은 유생과 민중이 결합한 전민족적 저항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춘영은 단양 장회협 전투 승리 후 호좌의진의 중군장으로서 원주와 충주 일대의 항일투쟁을 주도했고, 김도화는 안동의병을 이끌며 격문과 상소를 통해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했다. 최옥영은 군대 해산 이후 의병 활동을 거쳐 독립의군부에서 군자금 모집 중 순국하였으며, 이규홍은 의병 활동 후 독립의군부를 거쳐 상하이 망명 후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이러한 활동은 초기 의병운동이 독립의군부를 거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계승·발전되었음을 보여주는 항일투쟁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다.

## 이달의 전쟁영웅



**이일영 대한민국**  
공군 중위 1928~1952  
상훈: 충무무공훈장(1950, 1951)

**타호신 야즈즈 튀르키예**  
육군 준장 1892~1971  
상훈: 미 은성무공훈장(1950)

경북 안동 출신의 이일영 공군 중위는 6·25전쟁 초기 공군 조종사로 참전해 낙동강 방어선 사수와 동부전선 적 수송로 차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52년 1월 9일, 44회 출격 임무에서 적 보급로 폭격 후 귀환하다 적 대공포에 피격돼 전사했다. 그의 고향 안동에서는 ‘호국영웅 이일영로’를 지정해 기리고 있다. 타호신 야즈즈 준장은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 여단을 이끌며 유엔군의 핵심 지휘관으로 활약했다. 군우리 전투와 평양 철수 작전에서 뛰어난 전투력으로 유엔군의 전선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1951년에는 김량장리·수리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공로로 그는 대한민국 부대 표창과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2월



**오기호** 1865~1916  
훈격: 독립장(1962)

**이기** 1848~1909  
훈격: 독립장(1968)

**홍필주** 1857~1917  
훈격: 애국장(1990)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 침략이 본격화하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자 전 민족적 저항이 일어났다. 오기호·이기는 외교적 호소의 한계를 절감하고 1907년 1월 자신회(自新會)를 조직해 을사오적 처단을 시도하며 의열투쟁을 벌였다. 오기호는 암살 실무 주도 뒤 계몽운동과 대중교에 투신했고, 유학자인 이기는 오기호, 홍필주 등과 함께 을사늑약 저지를 위한 외교활동과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며 의열투쟁의 주창자로 나섰다. ‘자신회’에 참여했던 홍필주는 같은 해 대한협회를 창립하고 근대교육 보급에 나서는 한편 합병반대운동의 핵심 인물로 활약했다. 이들의 활동은 국권 상실의 시대, 지식인이 나아간 ‘책임의 궤적’이었다.



**서흥선 대한민국**  
육군 소위 1930~1952

**마리누스 덴 오우덴**  
네덜란드 육군 중령 1909~1951  
상훈: 발렘 군사훈장

서흥선 소위는 1951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1952년 2월 15일, 강원도 양구 662고지를 방어하던 제3사단 수색중대 진지에 적의 집중 공격이 시작되자 그는 소대원들을 지휘하며 적의 공세에 치열하게 맞섰다. 전투 중 기관총 사수가 전사하자 주저 없이 기관총을 인수해 싸웠으나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전사했다. 네덜란드 왕립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마리누스 덴 오우덴 중령은 1950년 11월 한국에 와 바로 전선에 투입됐다. 1951년 2월 ‘라운드 업 작전’에 참전한 그는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을 선도했으나 2월 12일, 황성고 일대에서 퇴각하는 국군을 엄호하다 전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 공을 기려 최고 무공훈장인 발렘 군사훈장을 추서했다.

보훈고등학교

4학년 5반

김 보 훈

2월

# 보훈 모의고사

3교시

1. 2026년에 보훈병원의 수장이 된 신임 병원장 세 분을 공단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다음 중 신임 병원장이 취임하지 않은 병원은 어디일까요?

(Hint. 공단초대석\_4-15p)

- ① 광주보훈병원
- ② 대구보훈병원
- ③ 대전보훈병원
- ④ 인천보훈병원

2. 다음 중 비뇨기계 질환과 관계가 먼 질환은 무엇일까요? (Hint. 특특 건강정보\_36p)

- ① 요로결석
- ② 방광염
- ③ 전립선염
- ④ 허리디스크

### 지난호 정답

1. ③      2. ②

### 지난호 당첨자

- |                |                |                |
|----------------|----------------|----------------|
| 1. 최○하(경기 하남시) | 2. 심○섭(전남 함평군) | 3. 유○자(서울 서초구) |
| 4. 안○린(대전 대전로) | 5. 임○지(경기 고양시) | 6. 최○정(경북 경주시) |

\* 당첨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퀴즈 정답, 독자의견! 이젠 엽서 말고 QR로 참여하세요!

퀴즈 정답, 독자의견 참여는 여기!



그동안 엽서로 진행해오던 독자 참여 코너를 이번 호부터 QR코드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위 QR코드를 휴대폰 'QR코드 스캐너'로 스캔해서 보훈모의고사(퀴즈) 정답과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2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기프티콘 전달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작성 필수!)

### 응모내용

- ① 50p 보훈모의고사의 정답을 써주세요.
- ② 1+2월호(97호)에서 유익했던 칼럼, 사보에 바라는 점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 ③ 공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정기구독 신청 및 주소 변경은 여기서!

# 독자의견

## 2월 FEBRUARY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격월간 사보 <가슴에 피어나는 꽃>이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고 따뜻한 글(독자참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 독자의견에 채택되신 분에게는 2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모바일로 드립니다.



의견 보내실 곳 우측 QR코드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 생생 현장



중앙보훈병원에서 '보훈의 마음'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밝은 모습으로 열린 '힐링토크쇼'가 가을의 선율과 함께하며 감사와 기억을 소환한 모습이 너무 신선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방에도 이런 행사가 열리길 소망하게 됐습니다.

경기 하남시 최지하

### 문화 속 건강읽기



산타할아버지 건강에 대해 다른 내용이 신선했습니다. 매년 산타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려나' 기다려 보긴 했지만 건강하십니까 걱정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산타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대전로 안아린

### 의술 & 인술



저는 광주보훈병원 전립선 로봇센터에서 진료받고 현재는 완벽해 잘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병석 선생님을 보훈병원의 명의로 소개한 지면을 통해서라도 다시 만나니 무척 반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함평군 심만섭

### 보훈의 흔적을 찾아서



내 고향 광주와 가까운 나주, 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된 나주역의 이야기를 알게 돼서 무척 반기웠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를 생각하며 나중에 나주 방문 기회가 생기면 나주역과 영산포, 전당대를 꼭 보고 와야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임명지

### 톡톡(Talk Talk) 건강정보



저인이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바뀐 손가락 등을 보면서 무척 두려운 병이라는 생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손목 관절이 아프고 신경이 곤두서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10분 10답이 유용한 정보가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유영자

### 이달의 독립운동, 전쟁영웅



<가슴에 피어나는 꽃>을 말할 때 독립운동가님들과 전쟁영웅님들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찬란과 무궁한 나라 안정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백 번 절하고 천 번 은혜에 감사한다는 '백배 백례, 천번 사해'의 마음으로도 부족합니다.

경북 경주시 최해정

# 복권의 다른 이름, 사랑입니다

한 해 약 2조 6천억 원의 복권기금, 대한민국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햇살론 유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복권 홍보대사 김소연



• 만 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불법사행사단감시신고센터 1865-0112. sango@gcc.go.kr | 동행복권센터 090-800-0501 http://clean.dhlottery.co.kr



보훈공단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의 의료·복지, 사회적 가치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의료서비스** 전국 6개 보훈병원 선진의료장비 지원, 보훈요양병원 건립 등 지원
- 복지서비스** 전국 8개 보훈요양원, 보훈휴양원, 보훈복지타운 운영 지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확인하세요!

# 당신은 우리의 히어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제복근무자에 보답하고자  
**전국 6개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 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는 여러분의 용기에 자부심을 더해 드릴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따스한 섬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감면율 및 감면대상자

감면대상	세부내용	감면율
군인	장기복무(10년이상 현역복무) 제대군인 현역 군장병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경찰공무원	현직 경찰공무원 경찰 소속 행정공무원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해양 경찰공무원	현직 해양 경찰공무원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소방공무원	현직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법무공무원	현직 법무공무원(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